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풍류정신문화 ‘멋’에 대한 연구

— 황순원의 『독 짓는 늙은이』를 중심으로—

나채근* · 노상래**

|| 차례 ||

- I. 서론
- II. 한국 풍류정신문화의 특징과 ‘멋’
- III. 유기체적 관점에서 본 한국 풍류정신문화의 이해
- IV. 『독짓는 늙은이』를 통한 풍류정신문화의 이해와 교육
- V. 결론

【국문초록】

고대 삼국 이전부터 한국인과 함께해 온 고유의 정신체계인 한국 풍류정신문화는 민족의 집단적인 정신적 에너지의 원형으로 관념, 생활, 제도 등 삶의 전반에 스며들어있는 신앙이자 정서이며 생활양식이었다. 그러나 풍류에 대한 자료나 문헌이 부족하여 명확한 학문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풍류의 고유한 특성은 상실되고 왜곡되어왔다. 따라서 풍류정신문화가 결핍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정합성, 논리성, 실천가능한 체계를 갖춘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으로 한국 풍류정신문화의 본질을 설득력있게 규명하는 일은 의미있는 일이다.

화이트헤드의 유기체철학은 생성과 과정을 실재(reality)로 보는 철학적 관점을 지닌 실천적인 사변철학이다. 필자는 이러한 유기체 철학적 개념을 통해 풍류정신문화의 핵심 요소인 ‘멋’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동시에 멋의 가치를 이분법적 분별에 두지 않음으로써 멋이 지닌 새로운 창조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 영남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1저자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교신저자

또한 풍류정신문화의 '멋'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고 있는 황순원의 『독짓는 늙은이』를 선정하여 한국어학습자들과 독서하는 학습과정을 구성하였다. 한국어학습자들은 학습과정에서 독서와 대화와 토론과정을 거치며 자신의 인식과 사고를 확인하고 수정·변환시켰으며, 한국 풍류정신문화에 대한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이해를 발전시켰다. 또한 자신의 인식과 사고의 확장을 통해 새로운 간문화적 시각을 지니게 되었다.

주제어 : 풍류정신 문화, 멋, 유기체 철학, 간문화적 시각

I. 서론

문화를 간단하게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문화를 총체적인 관점으로 정의하여 '인간 생활양식의 총체'라고 하든, 관념론적으로 정의하여 '인간 행위를 규제하는 규칙 체계'라고 하든, 문화를 온전히 정의하기에는 문화의 외연이 너무 크다. 문화개념에 대해 로빈슨(Robinson)은 신념, 가치관, 제도 등으로 대표되는 관념(idea)문화와, 문학·민속·예술·음악 등으로 대표되는 성취(products)문화, 그리고 관습·의복·음식·여가생활 등으로 대표되는 행동(behaviour)문화로 문화를 포괄적으로 정의한 바 있다.¹⁾ 물론 이는 문화를 편의상 3개의 범주로 나눈 것일 뿐, 문화의 3범주는 별개로 존재하기 보다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존재 양식이고, 나름대로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러나 표층적·현상적인 일상생활문화와 성취문화의 심층에 관념문화가 기층을 이루고 있음을 전제로 할 때, 문화 간의 사고와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행동양식이나 가치체계의 바탕이 되는 관념

1) 이와 관련하여 강현화는 행동문화(언어적 행위와 비언어적 행동)와 행동문화에 내재하는 관념적 문화(사고방식, 태도, 믿음, 가치관, 종교관 등)와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가치문화'라고 하였다. 강현화, 『한국인의 가치문화 교수 방안』, 『언어와 문화』 제3(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7, pp.85-115.

문화인 정신문화를 우선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정신문화를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교육 역시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진 사회 구성원의 행동문화와 성취문화의 토대인 가치구조와 의식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진다.²⁾

정신문화교육의 필요성은 한국의 정신문화교육에도 절실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한국 고유의 정신문화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명쾌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 고심한 끝에 필자가 얻은 답이 풍류정신문화였지만 풍류정신문화에 대한 문헌이나 자료가 많지 않은 까닭에, 고대 삼국 이전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민족 고유의 정신체계인 풍류정신문화를 올바르게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최치원은 풍류정신을 유(儒), 불(佛), 선(仙) 3교(3教)를 포함한 현묘한 도(道)라고 그의 「난랑비서(鸞郎碑序)」에서 밝히고 있지만 오늘날 풍류정신문화는 그 고유한 특성을 상실하고 왜곡되어 있다. 따라서 민족의 정신적 토대를 형성해 온 풍류정신문화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의하기 위해서는 풍류정신문화의 본질을 설득력 있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풍류정신문화가 결핍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정합성, 논리성, 그리고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받아들여질 실천가능한 일반성을 갖춘 체계를 화이트헤드(Alfred N. Whitehead)의 유기체철학으로 보완하여 풍류정신문화의 성격을 밝혀볼 수 있다. 화이트헤드의 유기체철학은 영속하거나 불변하는 실체를 실재(reality)로 간주하는 기존 철학체계와 달리 생성과 과정을 실재로 보는 철학적 관점³⁾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2) 배재원, 「고급 한국어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화 교육 방안 연구」, 『시와 언어학』 제24호, 시학과 언어학회, 2013, pp.85-106.

3) 일반적으로 서구 전통철학에서는 실체(實體, substance)를 존재 자체라고 여기고 있지만 이는 좁은 의미에서의 존재론이다. 동양사상(불교, 도교 등)이나 현대 서양사

본고에서는 유기체철학에 근거하여 화이트헤드의 궁극자 범주인 ‘창조성’, ‘다자’, ‘일자’를 바탕으로 미적 가치의 관점에서 풍류정신문화의 주요 속성인 ‘멋’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동시에 풍류정신문화의 멋을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고 있는 문학작품을 선정하여 한국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한국의 풍류문화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한국의 풍류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과정을 도출하며, 나아가 한국문화와 타문화가 조화되고 상생할 수 있는 문화교육을 탐색하려고 한다.

II. 한국 풍류정신문화의 특징과 ‘멋’

1. 한국 풍류정신문화의 특징

한국 풍류정신문화는 민족의 집단적인 정신적 에너지의 원형으로 관념, 생활, 제도 등 삶의 전반에 스며들어있는 신앙이자 정서이며 생활양식이었다. 달리 말하면 초월적이며 직관적인 삶의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풍류정신문화는 오늘날 그 존재가치가 상당히 희석되어 버린 실정이다. 많은 학자들이 풍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풍류에 대한 명확한 학문적 성격 규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풍류를 연구한 대표적 학자로는 김범부, 최남선, 안호상, 양주동⁴⁾ 등을 들 수 있다. 현대에 와

상 중 일부(화이트헤드의 유기체철학, 들뢰즈의 철학 등)은 궁극적인 존재와 나머지 존재의 관계를 포함하는 전존재(全存在)를 실제로 보는 넓은 의미의 존재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태호, 『한정형식에 의한 노자의 존재론적 구조 분석』, 대구가톨릭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 2014, p.118 참조.

4) 풍류를 언급한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김범부, 최남선, 안호상, 양주동 등을 들 수 있다.

서는 한홍섭, 민주식, 박홍주, 정병훈 등이 있다.⁵⁾ 그러나 풍류에 대한 종합성을 갖춘 체계적인 연구는 더 진행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필자는 화이트헤드의 유기체적 관점을 풍류정신에 적용함으로써 풍류정신 연구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풍류정신문화의 기원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종교적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는바 이런 성격은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마한의 '소도'의 제천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⁶⁾ 하늘에 제사지내며 모든 사람이 음주가무를 즐겼고 이때 노래와 춤은 신과의 교감을 위한 제의(祭儀)의 한 양상이었다.⁷⁾ 이런 의식을 통해 신과 인간,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고, 여기서 오는 카타르시스⁸⁾의 흥분함과 만족감은 삶의 새로운 모멘트를 부여하는 작용을 한다.

최남선(1972)은 풍류의 어원을 한민족 고유 신앙인 '부루'에서 찾고 있다. '부루'는 “밭의 누” 즉 광명세계를 의미하는 민족종교로 3교 이전부터 우리 민족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한다. 안호상 역시 풍류도는 유불선의 근본이념을 모두 포함하면서 배달교의 사상과 철학을 담고 흥익인간의 이념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였다. 양주동(1965)의 경우는 도술가의 풀이과정에서 풍류가 순수 우리말인 '부'에서 유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홍섭, 『풍류도의 어원』, 『신라학연구』8, 위덕대 신라학연구소, 2004, pp.53-76에서 재인용.

5) 한홍섭은 “최치원이 말하는 현묘한 도로서의 풍류가 한국전통음악에서의 풍류와 매우 밀접한 관계임을 ‘필사본 화랑세기’를 토대로 확인하였다.” 한홍섭, 『풍류도와 한국전통음악의 연관성』, 『국학연구』 제5집, 한국국학진흥원, 안동, 2005, pp.197-198. ; 민주식은 “한국의 풍류사상이 생태학적 삶의 모델로서 또 인간의 주체성에 근본을 두고 개성을 연마하는 유용한 삶의 방식의 모델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민주식, 『풍류사상의 미학적 의의』, 『한국미학예술학회』11, 2000, p.76.; 박홍주는 “여가와 여흥문화를 풍류의 관점에서 조망하였다. 박홍주, 『풍류로 본 여가와 여흥』, 『실천민속학 연구』 2-1, 2013, p.163.

6) 홍성암, 『풍류도의 이념과 문학에의 수용 양상』, 『한민족문화연구』 1, 1996, p.227.

7)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를 ‘디오니소스적’이라고 칭하고 “노래하고 춤추며 인간은 스스로가 보다 높은 공동체의 일원임을 표명하고.. 인간은 더 이상 예술가가 아니며 예술품이 되어 버린다.”고 하였다. 니체 프리드리히, 김대경 옮김, 『비극의 탄생/바그너의 경우/니체 대 바그너』, 서울: 청하, 1982. p.41.

이러한 초월적 조화의 개념에서 새로운 창조적 자유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멋’의 개념으로 전개된다.

‘풍류’는 최치원의 『난랑비서』에 처음 등장하는 말로 『삼국사기』의 『난랑비서』에는 풍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國有玄妙之道曰風流實乃包含三教接化群生入則孝於親出則忠於君魯司寇之教也 不言而教無爲而化周柱史之旨也諸善奉行諸惡莫作竺乾太子之化也...⁹⁾

최치원이 여기서 말하는 현묘지도는 백성을 올바르게 교화한다는 접화군생(接化群生)의 의미가 강하다. 즉 백성들로 하여금 하늘을 숭배하고 효와 충으로 행하고 선행을 쌓아서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묘지도에는 풍류정신이 함축하고 있는 ‘멋’의 정신이 잘 드러나 있다. 멋이란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말없이 가르침을 행하고, 선행을 실천하는 것으로, 가치판단의 기준을 이분법적 분별에서 찾지 않고 고정된 틀과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창조적 생명력에서 얻는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무형의 형상을 지닌 풍류정신문화는 자기동일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그 내면적인 차이를 새롭게 드러냄으로써 다른 어떤 정신문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차이성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우리는 표상적으로 대상의 자기동일성을 내세우지만 기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수없는 차이성이 존재한다. 해가 넘어갈 무렵 붉게 물든 노을에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8) 조동일, 『연극미학의 세 가지 원리: 카타르시스 라사 신명풀이 비교연구』, 『구비문화연구』3, 1996, p.442.

9) 김범부, 『화랑외사』, 대구: 이문출판사, 1981, p.222.

서로 다른 붉은 색이 존재하기 때문이다¹⁰⁾. 이러한 자기동일성과 차이성의 개념을 화이트헤드는 현실적 존재자(actual entity)의 합생(concrescence)과 이행(transition)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합생과 이행과정에서 생겨나는 창조성의 요소들은 풍류의 '멋'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2. 한국 풍류정신문화의 멋

떨어지는 빗물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수직으로 떨어지는 빗물들 사이로 이따금씩 수평적으로 튀어나오는 빗물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를 일탈 혹은 클리나멘(Clinamen)¹¹⁾이라고 한다. 일탈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탈선, 파괴, 전복, 혼란의 이미지를 지닐 수 있겠으나 기존의 고정되고 단조로운 질서와 구조에서 새로운 변화와 창조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뻗어간 소나무 줄기, 에둘러 굽이쳐 흐르는 시냇가, 강물과 하늘과 어울려 나지막이 굽이치는 봉우리. 이런 자연물들은 곧고 바른 정형적 이미지를 갖추지 못한 부정형적 형상이지만 더 친근하고 아름다운 멋을 선사하기도 한다.

음악의 경우, 부드럽고 잔잔한 선율은 어느덧 웅장하고 때론 경쾌한 리듬으로 변형되어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린다. 판소리에서의 일탈은 단연 두드러진다. 판소리 음악에 '아니리'란 영역이 있다. 아니리는 리듬을 가진 소리 부분과 일상적인 대화로 이어지는 언어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극이

10) 들뢰즈는 이를 모네의 수련에 비유하여 차이와 반복으로 설명하고 있다. 들뢰즈 질, 김상환 옮김, 『차이와 반복』, 서울: 민음사, 2004, p.27.

11) 물리학적으로 클리나멘은 관성적인 운동과 충력에서 벗어나려는 힘이다. 철학적 의미의 클리나멘은 에피쿠로스(Epikouros)에서 비롯되었는데 타성과 관성에 맞서 이에서 벗어나려는 이탈을 의미한다. 눈덩이가 커지는 원리, 들뢰즈의 접속과 탈주, 화이트헤드의 사건개념은 클리나멘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진행되는 동안 줄거리나 극적인 장면을 말로 설명하는 기능을 지닌다. 이 부분은 일정한 격식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소리를 하는 창자(唱者)마다 자신의 개성과 끼를 발휘하여 청중을 사로잡는다. 때론 유머나 기지를 발휘하여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도 하고 때론 상스러운 육두문자를 이용하여 청중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만족과 즐거움을 유발함으로써 관객들의 흥을 돋운다. 여기에는 정해진 틀이 없다. 창자는 수없는 반복적 공연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과 능력으로 관객들의 고정되고 정형화된 감정과 행동의 일탈을 유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창자와 하나가 되어 울고 즐기고 감격하는 경험을 부여한다. 이렇게 창자와 관객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고의 정서적 만족상태로 이끌어가는 것이 판소리의 아니리가 지니는 일탈의 묘미이다.

일탈에서 생겨나는 최상의 만족과 초월된 경지는 고착화되고 구조화된 정태적 문화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서양문화를 점의 문화라고 했을 때 동양문화는 선의 문화라고 한다. 선의 문화는 노마드(nomad)적 개념을 수반하고서 동일지평, 동일정서적 일관성으로 감정과 정서를 고양시켜 자기만족(자기향유)으로 완성해가는 문화이다. 반면 서양문화를 점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동과 변화의 특성보다는 개체의 중요성을 우위에 놓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산조가 느린 진양조에서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일관되게 상태의 변화를 지속하며 절정의 상태를 이끌어 간다면, 서양의 교향악은 빠른 알레그로 악장이 오면 반드시 느린 안단테 악장을 대조시키고 다시 알레그로 악장으로 대조시키며 지속적인 선의 개념보다는 부분부분을 강조하는 점의 개념으로 음악을 편성하여 이원론적인 선명한 대조적 변화를 피하고 있다.”¹²⁾ 이렇듯 한국의 음악은 일관

12) 한명희, 『엇물이 장단과 일탈의 미학』, 최정호 편, 『멋과 한국인의 삶』, 서울: 나남출판, 1997, p.193.

된 하나의 요소와 내용으로 그 최종 지점까지 지속적으로 끌고 가서 완성을 이루는 특징을 지니며, 그 가운데 일탈이 작용하여 그 완성도를 한층 심화시키는 것이다.

한국문화에서 발견될 수 있는 파격의 멋은 음악 분야만이 아니다. 당시 사람들의 철학적 사유와 미적 감각은 건축에도 반영된다. 건축과 관련하여 주요 특성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자연미와 소박미를 바탕으로 한 파격미이다. 이러한 파격미를 강조한 한국 건축의 특성은 첩석과 덩벙주초의 활용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다.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활용되는 첩석의 경우 일반적으로 성벽이나 정원석을 쌓을 때 정교하게 다듬어진 정형화된 돌을 쌓아 나간다. 그러나 자연석을 가공 없이 사용하고 그 형태에 맞추어 다른 재재를 결합시키는 한국의 덩벙주초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불국사의 석축 부분을 보면 자연석 위에 놓여지는 돌의 아래 부분을 자연석에 맞추어 그랭이질하여 올려놓는 건축법을 사용하고 있다. 가공하지 않고 생긴 그대로의 재료를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처리한 예는 화엄사의 천불암에서도 볼 수 있다. 있는 그대로의 목재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보를 얹어서 자연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석축의 모습이나 나무를 정교하게 깎아 기둥과 보를 맞물리게 하는 기존의 방식과 다른 자연미를 살린 일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의 일탈이란 곱멋이 든 일탈이 아님은 앞서 말한 바 있다. 일탈을 위한 일탈, 단순하고 의도적인 일탈이 아닌 거듭된 화학작용으로 인해 술이 익어가듯, 쪼개어 쌓여 하나의 지층이 되고 산이 형성되듯, 시간이 흘러 밤송이가 터지듯, 100C가 되어 물이 끓어오르듯, 무수한 경험과 역량이 쌓여 경지에 오른 주체만이 자연스럽게 행위할 수 있는 일탈의 장단인 것이다. 이러한 일탈의 멋이 바로 풍류가 지닌 멋인 것이다. 그러나 풍류가 지닌 멋을 외견상 나타나는 멋에만 한정시킨다면 풍류의 정신적이고 초월적

인 멋의 의미는 사장되고 말 것이다. 현상으로 나타나는 멋의 이면에 심리적, 정서적, 정신적 특색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최상의 만족의 순간인 “마지막 일점으로 생명을 불어넣는 화룡점정(畫龍點睛)과, 추사 김정희가 언급한 천기청묘(天機淸妙)의 경지”¹³⁾에서 보여지듯이 세속적 삶의 한계를 벗어나 불가능해 보이는 정신적, 정서적 일탈의 신묘한 경지 또한 풍류의 멋일 수 있다. 신라시대의 화랑인 사다함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사다함은 많은 왜병을 포로로 잡은 공적으로 노예와 토지를 나라로부터 하사받았지만, 결국 하사받은 노예를 모두 풀어주고 토지도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친한 친구가 병사하자 자신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인물이다. 사다함의 일화에는 풍류정신의 멋이 잘 구현되어 있다. 노예를 해방시켜 준 것은 제선봉행(諸善奉行) 제악막작(諸惡莫作)이라는 불교의 정신을 구현한 것이고, 토지를 부하에게 나누어 준 것은 박애(博愛)정신을, 그리고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다가 죽은 것은 우애(友愛)정신을 구현한 것이다.

Ⅲ. 유기체적 관점에서 본 한국 풍류정신문화의 이해

1. A. N. 화이트헤드의 유기체철학과 궁극자 범주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물리학에서의 전자기장 원리, 양자역학, 수학에서의 비유클리드 기하학, 위상학 등의 이론들은 자연과학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문학·역사·종교 등의 분야에서도 그동안 절대적으로 여겨졌던 신념과 가치에 대한 회의와 철학적 인식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그동안

13) 한명희, p.193.

절대적으로 여겨졌던 실체철학의 기반이 흔들리며 화이트헤드에 의한 생성과 과정을 실제로 보는 유기체철학이 제기되었다.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 즉, 실재를 과정으로 보는 관점은 변화와 유동을 전제로 과정의 세계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물질도 홀로 고정되어 영속하지 않으며 상호 내재적 변화에 의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19세기 이후 과학적 결정론과 환원주의를 대체하며 나타난 비유클리드 기하학, 아인슈타인의 물리학, 양자역학과 같은 혁신적인 이론을 갖춘 자연과학적 관점과 그레를 같이 하고 있다.

화이트헤드의 궁극자 범주(Category of Ultimate)는 '창조성(Creativity)', '다자(many)', '일자(One)'이다. "창조성은 이접적인(disjunctive) 방식으로 구성된 우주인 다자를 연결적인 방식의 우주인 하나의 현실적 계기로 만드는 궁극적 원리이다. 이러한 궁극자의 범주는 우연성(accident)¹⁴⁾에 의해 생성되어 간다. 이러한 과정은 보다 구체적으로 미시적 과정인 합생 과정과 거시적 과정인 이행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합생 과정은 현실적 존재자가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가능태를 내재화하여 하나의 통일체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일자를 형성하는 것이며, 이행 과정은 통일체로 형성된 현실적 존재자가 그 주체적 직접성을 상실하고 수많은 가능태 중 하나가 됨으로써 생기하는 또 다른 현실적 존재자의 여건이 되는 과정으로 상대적으로 완결된 현실세계를 사물의 본성에 따라 새로운 합생을 위한 여건으로 만들어 가는 창조성이다. 화이트헤드는 다자인 존재들이 창조성을 통해서 하나의 현실태 속으로 진입해 함께 존재하는 즉, '공재(togetherness)'하는 것을 "궁극적인 형이상학적 원리"로 보았다."(PR,

14) Whitehead, Alfred N., *Process and Reality*. Edited by David Ray Griffin & Donald W. Sherburne, New York: The Free Press, 1978.

p.7. 이하 인용은 PR로 하고 페이지 수만 밝힘.

p.21.) 이러한 공재는 다자가 일자가 되고, 그 일자가 다시 다자 중 일자가 되어 새롭게 생성되는 일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하는데(PR, p.21.), 화이트헤드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 사물의 생성과 변이와 창조성을 말하고 있다.

2. 유기체철학으로 본 풍류정신문화의 멋

한국인의 미의식을 가장 잘 표현하는 순수 고유어인 멋은 자연과 인간에 대한 조화인 동시에 인격적·도덕적 가치판단의 규범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인의 미적 의식의 기반을 형성하는 풍류정신문화의 멋이 화이트헤드의 미적 가치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화이트헤드의 미적 가치와 연결시키는 이유는 그가 인간 경험과 경험으로 인한 느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적 가치에 대한 본질적 특성을 제대로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 『과정과 실재』(*Process and Reality*)에서 “사변철학이란 우리 경험의 모든 요소를 해석해 낼 수 있는 일반적인 관념들의 정합적(coherent)이고 논리적(logic)이며 필연적인 체계를 조직하려는 시도”라고 말하며 정합적이며 논리적인 철학적 도식과, 적용 가능(applicable)하고 충분한(adequate) 해석을 강조하고 있다.(PR, p.3.) 이는 사변철학의 정합적이고 논리적이고 적용 가능한 방법론적 특성이 인간 경험과 느낌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화이트헤드에게서 주체는 여건에 따라 대상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주어진 여건이 곧 느낌이며, 이 느낌을 경험함으로써 현실태로서의 주체와 가능태로서의 대상은 서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화이트헤드는 그의 철학의 근본 요건으로 경험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

경험주의 철학자 흄의 경험과 유사하지만, 흄이 실험과 관찰로부터 귀납되고 논증되는 사실만 진리로 인정하고 인간의 지식과 사고를 지각에만 근거시키는데 반해, 화이트헤드는 경험을 인간 삶의 있는 그대로의 실재하는 모습으로 여긴다. 그러한 경험의 모습은 사물의 현상(appearance)에 대한 동시적 느낌뿐만 아니라 그 사물에 대한 직관적이고 인과적인 느낌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화이트헤드에게서 경험이란 주체가 대상을 '자기화'하는 것, 다시 말해 '자기향유(self-enjoyment)'¹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주체는 이질적인 다자의 상태에서 주체의 대상이 된 대상을 자기 향유하여 일자인 자신을 형성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체는 경험을 정신적인 것은 물론이고 정서적(emotional)인 것까지 확대하여¹⁶⁾ 의식 이전의 원초적인 경험인 물리적 경험까지 포함하여 자기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화이트헤드에게 있어서 경험의 모습이란 곧 현실적 존재자이면서 현실적 존재자의 느낌으로 나타나며, 이는 세계를 구성하는 궁극적인 실재적 사물이 현실적 존재자(PR, p.122.)라는 것이다.

현실적 존재자는 실재적으로 존재하는 생기(occasion)들이며 살아있는 세계를 구성하는 유기체들이다. 화이트헤드의 세계는 관념이나 추상이 아니라 큰 존재자부터 하찮은 한 가닥의 존재자까지 아우르는 현존하는 모든 존재자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들 존재자들은 살아있는 유기체들이기 때문에 정지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느끼는 존재자들이다. 화이트헤드가 궁극자의 존재 범주에 속하는 현실적

15) “유기체 철학은 경험을, ‘다자 속의 일자로 있다는, 또는 다자의 구조에서 생기는 일자로서 있다는 자기향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경험을, ‘개체적 실체가 관념에 의해 규정되는 자기 자신을 향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PR, p.145.)

16) Whitehead, Alfred N., *Adventure of Idea*, New York: The Free Press, 1961, p.175. 이하 인용은 AI로 하고 페이지 수만 밝힘.

존재자를 일컬어 복잡하고도 상호의존적인 경험의 방울들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이다. 이는 화이트헤드의 경험에 대한 이론과 실재에 대한 이론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궁극적인 실재적 사물로서의 현실적 존재자가 경험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¹⁷⁾ 따라서 그는 “모든 미적 경험은 동일성 아래에서의 대비¹⁸⁾의 실현으로부터 생겨나는 느낌”¹⁹⁾이라고 표현하면서 미적 경험과 더불어 느낌과 대비의 강도로 더욱 분명해지는 느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화이트헤드는 바로 이러한 궁극적이고 실재적 사물인 현실적 존재자들의 복합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경험으로부터 미적 경험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시도한다. 화이트헤드에게 있어서 현실적 존재자의 강도 있는 경험은 곧 미적 사실이기 때문이다.(PR, p.279.) 동시에 화이트헤드에게 있어 가치란 ‘사건의 내적 현실을 가리키는 용어’²⁰⁾로 현실적 존재자의 모든 경험에서 미적인 가치는 실현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²¹⁾

여기서 한국의 멋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보자. 한국인은 실재하는 모든 사물의 아름다움과 거기서 오는 일탈의 멋을 즐기는 미적 경험을 소유하고 있다. 화이트헤드가 실재한다는 사실은 곧 미적으로 경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듯이 현실적 존재자가 경험하는 사건 하나 하나는 엄연히

17) 윤자정, 『A. N. 화이트헤드의 유기체철학에서 미적 경험의 의미』, 『미학』 21, 1996, p.148.

18) 대비는 복잡한 하나의 여건 가운데 들어있는 다수의 구성요소들이 패턴화되어 지니는 통일성이다. A.N. 화이트헤드, 『과정과 실재』, 오영환 옮김, 2003, 민음사, p.682.

19) “All aesthetic experience is feeling arising out of the realization of contrast under identity”(PR, p.280.)

20) A. N. 화이트헤드, 『과학과 근대세계』, 오영환 역, 서광사, 2008, p.168.

21) 이에 대해 윤자정은 “‘실재’가 곧 ‘가치’이고 ‘가치’는 동시에 ‘미’이므로 ‘실재’는 곧 ‘미’가 된다……도식화해보면 이는 ‘실재(혹은 경험)’=‘가치’=‘미’의 관계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윤자정, p.150.

실재하는 것이고 없어지거나 버려져서는 안 되는 존재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나하나의 존재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버릴 것이 없으며 없어도 좋은 것은 없다”는 니체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며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아름다움에서 고유한 멋을 발견하는 것이 한국인들의 미적 감각이었다. 한국인들은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인위적 아름다운 멋만을 고집하지 않았다.

한국인이 인위적이지 않은 실재하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들은 인위적으로 만든 수로나 준설된 제방으로 흐르는 시내나 강물의 아름다움을 고집하지 않았다. 굽이쳐 변화하는 강물과 개울 그리고 곧게 뻗지는 못했지만 자연과 조화되어 굽어진 소나무 줄기에서 자연스러움을 찾았다. 즉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소박하고 단순한 모든 실재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있다.

둘째, 한국인들은 예술적인 멋의 추구에서도 시스템화되고 정제화된 미가 아닌 평범하고 소박한, 그리고 그것에서 일탈하는 자연스러운 미를 추구하였다. 종지곡선의 기와지붕이나 팔작지붕의 미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석을 생긴 그대로 다듬지 않고 활용하여, 남으면 남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다른 건축 재료와 결합시켜 자연미와 일탈미를 보여주었다. 덩벙주초의 경우나, 굽어지고 흰 목재 그대로 기둥을 세운 건축형태는 파격을 포용하는 자연미를 추구한 사례이다. 이것이 곧 “동일성 아래에서 대비의 실현으로부터 생겨나는 미적 경험”인 것이다. 동시에 한국인의 미적 경험이 현상적으로 그치지 않고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미적 추구로 이어진다는 점²²⁾을 놓쳐서도 안 된다.

즉 풍류정신문화가 지니는 진정한 한국적인 멋이 인간의 삶·가치관과

22) 화이트헤드는 강도 있는 경험(intense experience)은 미적 사실(aesthetic fact)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영환, 『과정과 실재』, p.543.

관련된 미적 가치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고매한 일탈의 경지에 이른 가치판단을 통한 내면적 멋의 실현도 한국적 풍류정신의 한 맥을 이루고 있다. 화랑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고, 선을 행하고, 우애를 실천한 사다함의 예에서 구현되는 풍류정신의 멋은 김유신에게서도 확인될 수 있다. 김유신 역시 부모의 생각을 이해하고 자신의 애마가 여전히 천관의 집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말의 목을 벤다. 그리고 삼국을 통일한 후 천관사라는 절을 짓는다. 김유신의 이런 효, 용기에서도 풍류정신의 멋을 느낄 수 있다.²³⁾ 사다함과 김유신의 지고한 미적 실천은 동일한 사건 속에서 대비의 강도에 의해 더욱 분명해진 느낌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한정된 삶의 굴레를 벗어나 인격적 일탈로 최상의 풍류정신을 구현한 인물들이다. 이때의 풍류정신의 멋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관념적이든 실천적이든 일상의 제도적·인습적 범위를 넘어선 보편적 미와 초월적 미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다.²⁴⁾ 선을 행하고 희생과 박애를 구현하고 무위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아름다운 삶을 지향하는 미적 실천이다. 이는 곧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현실적 존재자가 경험을 통해서 실현해 나가는 미적 가치와 같은 맥락의 미적 실천이다. 화이트헤드는 “개체를 특징지우는 감각여건이 대비의 패턴을 통해 파악²⁵⁾의 주체적 형식에 개입한다”(AI, p.216.)는 미적 경험을 언급하고 있거니와 동시에 “감각 여건이 제공하는 인식론의 한계를 넘어”(AI, p.228) 보편적인 인류애로 승화되는 미

23) 김범부, 『화랑외사』, pp.225-227. 김범부 외에 유동식은 풍류정신을 ‘멋’ ‘한’ ‘삶’의 범주체계로 설명하기도 한다. 유동식, 『풍류신학으로서의 여로』, 『신학논단』18, 1989, pp.58-59 참조.

24) 나채근,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적 관점으로 본 한국 풍류정신 문화』, 『화이트헤드 연구』29, 한국화이트헤드학회, 2014, pp.57-95.

25) 파악(prehension)은 “관계성의 구체적 사실”(PR, p.85)로 정의되는데 파악을 통해 임의의 한 현실태는 다른 현실태에게 느껴진다.

적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IV. 『독짓는 늙은이』를 통한 풍류정신문화의 이해와 교육

풍류정신의 멋은 한국의 고유한 정신적 문화적 차이성을 지니고 계승 발전되어 왔다. 앞장에서는 풍류정신문화의 일반적 특성과 화이트헤드의 유기체철학으로 본 풍류정신문화의 대표적 속성인 멋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여기서는 현재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앞에서 제시한 풍류정신의 멋을 구현하고 있는 황순원의 『독짓는 늙은이』(1950)를 통해 풍류정신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출하려고 한다. 『독짓는 늙은이』는 인간 본연적 심리와 정서를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비극적 현실을 고양된 정서로 그리고 있다. 송영감은 독가마 속에 들어가 깨진 돌조각 위에 단정히 무릎을 꿇음으로써 엄숙하고 초연한 삶의 멋을 제시하고 있다. 혈육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아름다운 사랑으로 승화되는 삶의 실천 또한 멋의 모습이다. 동시에 격변하는 사회 현실에 대항하며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장인의 예술혼으로 작품의 완성을 이루려는 염원과 시도 역시 멋을 표현하는 삶의 실현방식이기도 하다.

연구대상 학습자들²⁶⁾은 토픽 4급 이상으로 대학과 대학원에서 한국어, 한국문학, 사회학 등을 전공하는 학습자들이다. 학습과정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수행되었으며 학습자들의 한국소설과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과 사고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본고는 또한 소설의 내용 이해

26) 학습에 참여한 외국인 학습자들의 인적 정보는 다음 도표와 같다. 그리고 이해 과정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논문 분량의 제약으로 본 논문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다만 원하는 연구자가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제공하려 한다.

에 더하여 작가의 문학관, 사상, 작가가 속한 시대사적 사조 및 사회 배경을 전반적으로 제시하고 독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소설과 참고자료를 읽은 후 스스로와의 대화와 사고의 발전을 위해 매 단계마다 감상문을 작성하게 하였고, 씌여진 감상문으로 다른 학습자들과 토론, 그리고 지도교사와의 토론을 거치게 함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비교하고 추론하게 하였고, 자신의 생각을 명료히 하고 오류를 정정하여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을 지속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한국 풍류정신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였다.

1. 부분적 이해

1) 작품 내용 및 사건과, 사건이 함축하는 상징성 이해

기억에 남는 사건의 상징성 부분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송영감과 당손이의 이별 장면과, 소설의 마지막 부분인 송영감이 파편화된 독 위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다. 첫째 장면의 경우 “송영감이 아들과 이별하는 장면은 이타적 행위와 마음의 고통을 통해 송영감이 비극적 상황에서 도 성숙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독』-부분1-5-중Ja, O)²⁷⁾고 이해한다. 둘

	학습자	국적	성별	한국어능력	학력	나이	거주기간
1	A	중국	여	6급	대학원 박사과정(문학전공)	28	1년반
2	B	중국	여	6급	대학원 박사과정(문학전공)	26	6개월
3	C	중국	여	5급	대학원 석사과정(문학전공)	27	1년
4	D	인도	남	6급	대학원 박사과정(문학전공)	30	8년
5	E	베트남	여	6급	대학졸업(한국어)	28	6년
6	F	중국	남	6급	대학원 박사과정(사회학전공)	28	7년
7	G	중국	여	6급	대학원박사과정(언어문화전공)	29	9년
8	H	중국	여	5급	대학 재학(경제학)	27	4년
9	I	중국	여	5급	대학원 석사과정(언어학전공)	25	5년
10	J	중국	여	4급	대학 재학(사회학)	25	4년

째 장면은 “현실에 대한 무력감과 절망의 표현인 동시에 예술가가 목숨을 바쳐 진정한 예술품을 만들려는 장인정신”이라고(『독』-부분1-6-중H)이 해한다. 두 장면에서의 ‘아들에 대한 애뜻한 부정’이라든가 ‘진정한 예술품을 만들려는 장인정신’에 대한 이해는 인간 보편적 정서와 감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외국 학생들도 인류 보편적인 정서 이해라는 측면에서 공통된 이해에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작품 내 갈등의 원인과 해소, 그 상징성 이해

송영감이 겪는 갈등의 원인이 여러 가지라는데 이견은 없다. 아내와 조수의 배신, 독짓기 실패, 어린 자식의 양육, 병들어 죽어가는 육체 등으로 자포자기에 빠져 실의에 가득 차 있다. “파편화된 독을 바라보며 몸을 세우고 무릎을 꿇는 동작은 예술에 대한 집념을 드러내고 있다.”(『독』-부분 2-6-중J)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유일한 해결 방법으로 가마에 들어가 육체를 던져 독과의 합일을 시도하는 것임에 모든 학습자들의 견해는 일치한다.

그러나 부분적 이해 단계에서 외국인 학생들은 이야기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사건이나 인물의 표면적인 의미만 이해할 뿐 전체구조나 사건의 인과에 대한 논리적 파악이 결여되어 있었다. 또한 한국적인 관용적 표현이나 토속적 어휘, 정서가 부족하여 표현이나 문장이 내재하고 있는 함축적 이해에 한계가 있고,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역사적·사회적 정보가 부족하여 피상적인 작품 이해에 그치고 있다.

27) 학습자에 대한 표기는 다음과 같이 기호화한다. [작품-이해전략단계-등급구분-모국어정보]. 예) (『독짓는 늙은이』-부분-6-중J)

2. 전체적 이해

1) 작품의 주제 및 한국인의 정서 이해

주제에 대한 이해는 폭넓게 드러나고 있다. “현실과 이상, 전통사회와 현대사회를 사는 인간 간의 갈등”(『독』-전체1-6-중O)이라는 막연하고 피상적인 이해에서, “삶에 대한 인간의 집착, 자신의 삶에 대한 노인의 집념과 좌절”(『독』-전체1-6-중G)과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면서도 굴복하지 않으려는 정신의 표현”(『독』-전체1-5-중Ja)이라는 이해가 드러나 있다.

학습자들은 “송영감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삶에 대한 집착과 노력에서 한국인의 심성을 볼 수 있다”(『독』-전체1-5,6-중G, Ja)거나, “독짓기라는 창작과정에서 집중력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독과 합일하려는 철저한 장인 정신을 제시하였다.”(『독』-전체1-6-중H)고 하였다. 다른 견해로는 “작품 내 주변 환경과 여러 행위의 작용인은 한국적인 상황이지만 이는 세계의 보편적 특성이어서 굳이 한국적인 것만은 아님을 지적”(『독』-전체1-6-중Ju)하기도 하였다.

2) 비교문화, 비교문학적 이해

한 학습자는 『독짓는 늙은이』와 비슷한 자국의 작품으로 남자가 옥을 가지고 ‘정화하서양도’(鄭和下西洋圖)를 조작하라는 주문을 받고 밤낮 없이 일하다가 토혈해 죽은 광달의 『모슬렘의 달』을 제시하였다. 다른 학습자는 임어당(林語堂)의 『경화연운』(京華煙云)이란 작품을 제시하면서 “요사안(姚思安)이……자기의 생을 마친 것은 아주 비장하고 인상이 깊었던 부분이었고 예술을 위한 헌신이 아니지만 전통문화를 일본인으로부터 지키려는 마음 혹은 민족주의는 작품 속에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독』

-전체3-5-중Ja)고 자국의 작품과 비교하고 있다.

학습자들은 「독짓는 늙은이」와 관련하여 두 작품을 비교했으나 주제나 소재 상 혹은 작가의 의도와 유사한 작품을 소개하지 못했다. 비슷한 자국 소설이 없을 수 있겠으나 유사한 작품을 소개하지 못한 이유는 아직 「독짓는 늙은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상호텍스트성²⁸⁾을 통한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문화와 자국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한 사고 인식과정을 생산한다. 따라서 한국소설과 문화에 대한 이해의 심화와 자국 문화와의 비교를 통한 상호 문화인식은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인식과정을 화이트헤드는 대비(contrasts)라고 명명하고 있는데,²⁹⁾ 대립되는 사실들을 대비시킴으로써 기존의 사실들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고 적극적인 지적 모험을 통해 새로움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비 과정의 부분적으로 동일하고 부분적으로 상이한 인식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새롭고 창조적인 이해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3. 창조적 이해

1) 역전과 변환적 이해

앞서 언급한 대비를 통한 부분적으로 동일하고 부분적으로 상이한 여건

28) 자크 데리다(J. Derrida)는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을 언급하면서 텍스트의 요소들은 그 어느 것도 완전히 현존할 수 없고 다만 서로 다른 요소들에 대해 언급(refer)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김성곤, 「탈구조주의의 문학적 의의와 전망」, 『탈모더니즘 시대의 미국문학』, 서울대출판부, 1989, p.119. 즉 언어의 의미는 자기동일성으로 고정되지 않고 다른 언어와 끝없는 차이를 생성해낸다는 것이다.

29) PR. p.22; AI. p.279. 화이트헤드는 “보편자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PR. p.227) '로마'와 '뉴욕'에 대한 설명을 대비로 표현하고 있으며, 들뢰즈도 '단풍잎'과 '모네'에 대한 설명을 대비와 유사한 개념인 '차이'로 표현하고 있다.

을 파악하여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곧 ‘역전’의 개념이며(PR, p.26.) 이러한 이해를 나름대로 추상적 일자로 만들어 가는 것이 ‘변환’의 개념이다.(PR, p.27.) 외국인 학습자들의 소설에 대한 이해는 일반적이고 단순한 이해에서 시작하여 깊이 있는 이해로 발전하고 있다. 단순한 소설 이해의 경우 “송영감의 정신은 작품 완성을 향한 장인정신이 아니라 현실타개를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감수하는 정도의 장인정신의 표현”으로 이해한다. (『독』-창조1-6-중O) 즉 송영감은 독짓기에 대한 완성된 깨달음 없이 외부에 의해 쉽게 영향 받고 깨어지는 유리동물원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나 결말 부분에서는 비장한 느낌을 주며 몸소 독가마에 들어가 자신의 몸을 독으로 만드는 것은 예술의 최고 경지에 이른 비범한 장인의 모습이다.”(『독』-창조1-6-중J)라는 반론도 있다.

역전된 인식과 변환된 이해의 경우 “이전 독서에서는 파편화된 독 조각을 젊은 조수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상징만으로 보았으나, 이해가 깊어질수록 독의 파편은 편안한 삶도 아내와의 행복한 삶도 자식과의 평화로운 삶도 모두 깨어져버린 파편화된 삶의 한 부분이란 것과, 그 파편은 송영감의 종말을 예고하는 삶의 비애라는 것이라고 느끼게 되었다.”(『독』-창조1-6-중H)고 인식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다. 결국 “노인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인생의 의미를 전달하려는 작가의 의도와, 인생이란 타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우주의 합일을 통해 우주에 회귀하는 것임을 시사하며 니체의 의미부여 의지와 연관시키는 이해”³⁰⁾(『독』-창조1-6-중J)에 도달하기도 한다.

30) 이 학생은 존재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론적 사고를 하는 학생으로 송영감이 독-예술과 우주-과 합일하려는 집념을 니체의 ‘힘에의 의지’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2) 멋에 대한 이해

학습자들은 매 단계를 거쳐 오면서 기존의 이해를 확인하고 수정하면서 심화시킬 수 있었다. 화이트헤드의 미적 경험이란 이해와 파악의 주체가 수행하는 모든 경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써 동일성 아래에서의 대비의 실현으로부터 생기는 느낌(PR, p.280.) 즉, 경험의 차이와 반복에 의한 미적 가치인 바 풍류정신문화의 멋의 가치와 동일한 것이다. 학생들의 멋에 대한 이해는 “송영감은 몸이 병들어 죽음에 이르렀고 수많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했음에도 또 다시 일어나 가마 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혼을 독에 붙여 넣는다. 이러한 합일이 멋이다.”(『독』-창조2-6-중H, Ja)라는 표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송영감이 마지막 장면에서도 독가마 속에서 단정히 무릎을 꿇고 독과 같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현실적 고통을 극복하고 인식의 전환을 통한 아름다운 삶을 지향하려는 미적 실천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승화된 미적 경험은 곧 멋이라고 할 수 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최후의 독을 지어보겠다는 행위의 미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학습자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났다.

생의 마지막 혼을 담은 송영감의 독짓는 행위에 대해, 피상적인 이해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다. “송영감이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죽음을 태연히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갈등을 극복하고 자기 방식으로 죽음에 직면하는 것이 멋의 요소라고 생각한다.”(『독』-창조2-6-중Ja)는 대답에서 멋의 요소가 단순히 자기 식으로 죽음을 존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이해에 그치고 있어서 멋의 구체적 의미 즉, 마지막 독을 지으며 최상의 예술적 완성을 성취해 보려는 의도인 실천적이고 행위적인 멋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송영감이라는 개체가 처한 개인적 좌절, 무능력감, 어떻게든 예술적 승화를 이루어보려는 복합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정신적·심리적

요소의 융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이해 즉, 실천과 적용을 통해서 주어진 변화하는 삶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정신적 초월성이나 순수성만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송영감이 독가마 속으로 들어가 흩어진 돌조각 위에 단정히 무릎을 꿇는 장면은 생명과 죽음, 그리고 독과 인간이 조화로 수렴되는 하나의 정점(still point)이라고 인식하거나”(『독』-창조2-6-중 O), “송영감은 자기의 혼을 독에 넣었던 것이다. 송영감은 바로 독이며 독은 송영감이라는 세계를 창출했다. 자아와 독과의 합일, 육체의 ‘독’화 이것은 장인으로서의 멋이다.”(『독』-창조2-6-중J)라는 답변에서는 학습자들은 송영감이 독과 합일되어 예술작품을 성취해냄으로써 미적 경험을 통한 새로운 자아를 창출해 냈다는 멋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고 있다. 이는 화이트헤드가 사건과 실재와 경험과 미와 가치를 동일선상에 놓고 “나는 ‘가치’란 말을 사건 그 자체의 고유한 실재를 표현하는 것으로 사용한다”고 말했다를 때의 의미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학습자들은 “독에 들어가 육체와 독의 합일을 시도하고 하나의 세계를 창출하는 것이 장인으로서의 멋이라고 이해한다. 이는 작품의 이해 단계별로 형성되었던 인식의 여건들이, 파악하는 주체적 형식³¹⁾에 개입해 가면서 새로운 인식 경험을 생산하는 것이며, 개인적 차원을 넘어 보편적 인간 존재의 경험과 사고로 확대된 미적 가치로 변환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송영감이 삶을 통해 최후의 독을 완성해 보겠다는 의지로 독짓는 경험을 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실재의 모습이고 이러한 미적 경험이 곧 미적 가치를 지니고 풍류정신의 멋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가능한 일이었다. 다만 한국인 개인 즉, 송영감 개인

31) 파악의 주체적 형식은 그 파악의 주체가 그 파악의 여건을 느끼는 방식이다. 주체적 형식에는 정서, 평가, 목적, 혐오감, 의식 등이 있다.(PR, p.88)

의 특수한 상황이나 그가 처한 특수한 한국적인 정서와 시대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다면 진일보한 풍류의 멋을 이해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V. 결론

본고에서는 문화의 3범주인 관념문화, 성취문화, 행동문화 중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성취문화와 행동문화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관념문화 즉, 정신문화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동시에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정신문화 교육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한국의 고유한 가치와 신념체계를 지닌 풍류정신문화 교육 이해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풍류정신문화의 특성을 '멋'으로 정의하고 화이트헤드의 유기체적 관점을 가져와 정합적인 논리성과 적용가능성을 부여하였다. 유기체 철학적 관점의 미적 경험이란 벡터로 진입하는 대상을 파악하는 주체 즉, 현실적 존재자가 경험하는 느낌으로, 이 느낌은 동일성 아래에서 대비의 실현을 통해 미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미적 경험에서 오는 미적 가치의 추구는 자연스러운 파격미와 삶 속에서 현묘한 도를 실천해 간 한국적인 멋의 가치와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비록 이러한 범주화로 인한 한정형식이 풍류정신문화의 다른 속성을 불가피하게 배제한다 해도 풍류정신문화의 주요 속성 중 하나인 멋에 대한 성격 규정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여겨진다.

풍류문화의 '멋'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고 여겨지는 『독짓는 늙은이』를 선정하여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학습하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작품 속에 나타난 멋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부분적 이해, 전체적 이해, 창조적 이해 단계를 구성하였다. 그들은 각 단계별 이해를 거치며

사색과 토론을 통해 기존의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을 수정·변환시켰고, 새로운 인식과 사고를 확장해 가며 풍류정신문화의 멋에 대한 폭넓고 심층적인 이해에 도달하고 있다. 한국 풍류문화의 멋은 성취문화나 행동문화에서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일탈의 멋뿐만 아니라 정신문화에서 드러나는 삶의 경험을 통한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내면적 일탈과 조화의 멋을 공유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풍류정신문화의 멋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의 삶, 사유방식, 정서, 생활습관, 가치관 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고 동시에 자신의 문화와 비교를 통해 문화적인 안목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

외국인 학습자들로 하여금 문화의 보편성과 특이성을 인정하는 다원문화적 입장에서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고 상호 이해와 교류를 통한 문화 간 상생과 조화의 안목을 기르도록 교육하는 것은 중요하다. 한국문화교육은 외국인 학습자로 하여금 목표문화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수용과 배제과정을 통해 목표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국 문화의 정체성을 확인함으로써 상호 공존하는 문화교육을 모색할 때 그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현화, 「한국인의 가치문화 교수 방안」, 『언어와 문화』 제3(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7, pp.85-115.
 김범부, 『화랑외사』, 대구: 이문출판사, 1981, p.222.
 김성곤, 「탈구조주의의 문학적 의의와 전망」, 『탈모더니즘 시대의 미국문학』, 서울대출판부, 1989, p.119.
 나채근,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적 관점으로 본 한국 풍류정신 문화」, 『화이트헤드

- 연구』 29, 한국화이트헤드학회, 2014, pp.57-95.
- 니체 프리드리히, 『비극의 탄생/바그너의 경우/니체 대 바그너』, 김대경 옮김, 서울:청하, 1982, p.41.
- 들뢰즈 질, 김상환 옮김, 『차이와 반복』, 서울:민음사, 2004, pp.25-47.
- 민주식, 『풍류사상의 미학적 의의』, 『한국미학예술학회』 11, 2000, p.76.
- 박홍주, 『풍류로 본 여가와 여흥』, 『실천민속학 연구』 2-1, 2013, p.163.
- 배재원, 『고급 한국어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화 교육 방안 연구』, 『시와 언어학』 제24호, 2013, pp.85-106.
- 유동식, 『풍류신학으로서의 여로』, 『신학논단』 18, 1989, pp.51-69.
- 윤자정, 『A. N. 화이트헤드의 유기체철학에서 미적 경험의 의미』, 『美學』 21, 1996, pp.145-166.
- 이태호, 『한정형식에 의한 노자의 존재론적 구조 분석』, 대구가톨릭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 2014, p.118.
- 조동일, 『연극미학의 세가지 원리: 카다르시스 라사 신명풀이 비교연구』, 『구비문학연구』 3, 1996, p.442.
- 한명희, 『엇몰이 장단과 일탈의 미학』, 최정호 편, 『멋과 한국인의 삶』, 서울:나남출판, 1997, p.193.
- 한홍섭, 『풍류도의 어원』, 『신라학연구』 8, 위덕대 신라학연구소, 2004, pp.53-76.
- _____, 『풍류도와 한국전통음악의 연관성』, 『국학연구』 제5집, 한국국학진흥원, 안동, 2005, pp.197-198.
- 홍성암, 『풍류도의 이념과 문학에의 수용 양상』, 『한민족문화연구』 1, 1996, p.227.
- 화이트헤드, A.N. 오영환 옮김, 『과정과 실제』, 민음사, 2003, p.682.
- 화이트헤드, A.N. 오영환 옮김, 『과학과 근대세계』, 서광사, 2008, p.168.
- Whitehead, Alfred N., *Process and Reality*. Edited by David Ray Griffin & Donald W. Sherburne, New York: The Free Press, 1978.
- Whitehead, Alfred N., *Adventure of Idea*, New York: The Free Press, 1961.

Abstract

Study on Korean Pungryu Spiritual Culture ‘Mut’
for Korean Learners

—Focusing on Hwang Soon Won’s 『An Old Potter』—

Ra, Chae-Kun · Roh, Sang-Rae

Pungryu Spiritual Culture, which has been Korea’s original spiritual culture, is an archetype of the collective moral and spiritual energy of Koreans. It is the basis of the people’s religion, lifestyle, and emotions. However, owing to a lack of academic materials, the origin and characteristics of Pungryu Spiritual Culture have not been accurately studied, and many of its intrinsic properties have been lost or distorted.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make a persuasive inquiry into the essence of Pungryu Spiritual Culture with the help of A.N Whitehead’s philosophy of organism.

In contrast with the views of other substance philosophies that regard an unchanging, permanent thing as a ‘real thing’, Whitehead’s philosophy of organism holds the perspective that considers *process* and *creation* as a real thing. By applying the philosophy of organism to the character of Pungryu Spiritual Culture, I try to define ‘Mut’ (aesthetic value) which makes up the core components of Pungryu Spiritual Culture.

This study also formed the foundation of a course for foreign students, involving reading 『An Old Potter(독짓는 늙은이)』 which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of ‘Mut’. Through the learning processes of reading, dialogue, and discussion, students were able improve their thought and cognition, and develop a logical and critical understanding of Pungryu Spiritual Culture. Through the extension of their cognition, they also gained a deeper intercultural perspective.

Key Word : Pungryu Spiritual Culture, Mut, Whitehead’s Philosophy of Organism,

intercultural perspective.

나채근

소속 : 영남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전자우편 : cknah@hanmail.net

노상래

소속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자우편 : yunc82@ynu.ac.kr

이 논문은 2016년 2월 26일 투고되어
2016년 4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6년 4월 16일 게재 확정됨.